

배포 일시	2022. 6. 23.(목)		
담당 부서	도시정책관 도시경제과	책임자	과 장 신광호 (044-201-4845)
		담당자	사무관 김강문 (044-201-4844)
보도일시	2022년 6월 24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6. 23.(목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키르기즈, 몽골 등 9개 국과 스마트시티 협력사업 추진 - 2022년 K-City 네트워크 사업, 9개국·10개 도시 선정 -

-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해외도시의 스마트시티 조성을 지원하고 국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하는 K-City 네트워크의 '22년 사업으로 키르기즈, 몽골, 말레이시아 등 9개 국가에서 10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- '20년부터 시작된 K-City 네트워크 사업은 '21년까지 19개 국가(21개 도시)에서 23개 협력사업을 추진하였으며, 금년 선정된 사업을 포함하면 총 21개 국가(31개 도시)에서 33개의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된다.



□ 올해 K-City 네트워크 사업은 ①스마트도시 계획수립, ②스마트솔루션 해외 실증 사업으로 구분하여 3월부터 두달간 국제 공모를 시행하였으며, 17개 국가에서 33개 사업의 신청을 받았다.

- 신청된 사업에 대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스마트 도시의 실현가능성과 신청지역의 준비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개 사업을 선정했다.

【 '22년 K-City 네트워크 대상 사업 】

구분	국가/도시명	사업내용
스마트 도시 계획수립 (8)	키르기즈 /이식쿨	· 이식쿨 호수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친환경 스마트관광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
	몽골 /준모드	· 울란바토르 인구 분산을 위한 쿠싱밸리(경제자유구역) 남부 준모드 지역에 스마트도시(신도시)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
	말레이시아 /클랑	· 역사도시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, 관광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도시로 재탄생하기 위한 스마트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
	방글라데시 /쿨나	· 교통체증, 하수도시설 노후화, 폐기물 관리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
	아제르바이잔 /장길란	· 국경지역의 미개발 지역에 대한 수자원, 전력, 주택 등 인프라 공급을 포함한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
	인도네시아 /자카르타	· 효율적인 토지관리를 위한 디지털트윈 기반의 토지대장 구축계획 수립(월드뱅크에 협력사업으로 제안)
	볼리비아 /와르네스	· 그린수소를 활용한 모빌리티 구축 및 탄소배출권 솔루션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
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(2)	베트남 /호치민	· 도시철도 건설계획과 연계되는 대중교통 환승시스템 등 구축을 통한 도시교통문제 해결 마스터플랜 수립
	태국 /묵다한	· 메콩강 인근 국경지대를 대상으로 하이브리드 드론(전기+휘발유)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(묵다한 경찰당국 지원) 체계 실증
	인도네시아 /마디운	· 도로의 차량을 감지하여 밝기가 실시간으로 조절되는 스마트가로등을 설치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검증

- 스마트도시 기본계획 수립 사업은 사업별로 3~5억원을 지원하며, 국내 기업을 선정하여 기본계획 수립 또는 타당성 조사 등을 대상국가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.
- 사업 수행을 위한 국내 기업은 기술능력이 우수하고, 해당국가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현지의 이해도가 높은 기업을 선정(6월말 공고, 7월 선정)할 계획이다.
- 스마트 솔루션 해외실증 사업은 2개 사업에 대해 각각 4억원을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며, 기술을 보유한 우리기업이 현지에서 솔루션을 실증하고, 확산방안을 모색한다.

- 정부는 K-City 네트워크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외 정부 또는 도시와 스마트시티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, 현지에서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워크숍, 기술 소개를 위한 로드쇼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.
- 국토교통부 김복환 도시정책관은 “20년부터 시작된 K-City 네트워크 사업이 이제는 스마트도시 분야 국제협력을 위한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, 해외국가와 도시에서 관심과 호응도 높은 상황” 이라면서,
 - “해당사업을 통해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기업차원에서 해외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기술·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.” 고 말했다.
- 한편, 국토교통부는 오는 8월에 개최되는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(8.31~9.2, 고양 킨텍스)와 연계하여 K-City 네트워크 사업을 통한 개발도상국과의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의 효과와 발전방안에 대하여 월드뱅크, IDB 등 국제기구와 함께 논의하는 컨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이다.